

고대 그리스 문화 속 식물의 의미 연구:

올리브나무, 석류, 포도나무, 아칸서스를 중심으로

김혜진*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식물과 나무에 대해 지녔던 관점을 고찰하고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 드러난 올리브나무와 석류, 포도나무, 아칸서스의 의미를 추론하고자 한다. 도시 아테네와 그 수호신 아테나의 상징물로 여겨진 올리브나무는 그 나뭇가지로 만든 머리관이 그리스 전역에서 축제와 경연의 승리자에게 수여되어 ‘승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석류는 헤라와 데메테르의 상징물로 다산과 풍요, 생산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페르세포네와 관련하여서는 하데스의 지하세계와 죽음을 의미하였다. 포도나무는 디오니소스와 포도주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아칸서스는 신전과 다양한 건축물에서 기둥을 장식하는 모티프로 사용되었고 무덤 조형물의 장식으로 애용되었는데, 이는 아칸서스가 지닌 강한 생명력과 부활의 상징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서 고찰한 네 종류의 식물은 특정 신성과 연계되거나 신성한 힘, 초인간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주제어】 고대그리스, 식물, 올리브나무, 석류, 포도나무, 아칸서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 이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이 연구는 2019년 8월 10일 <서울 식물원>과 <한국미술사교육학회>가 주관한 『미술, 식물과 만나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질의를 통해 연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신 이상덕교수님(경희대학교)에게 감사드립니다.

<https://doi.org/10.34162/hefins.2019..23.003>

I. 들어가는 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무와 식물은 인간에게 유용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특히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나무와 식물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재인 동시에, 삶의 물리적, 정신적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저술가인 플리니우스가 『박물지』에서 나무와 숲에 관하여 기술한 부분은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낸다.

나무와 숲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 이들은 예부터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뭇잎은 동굴 바닥에 깔개로 쓰였고, 나무껍질은 옷이 되었다. (……) 우리는 바다를 가르는 배를 만들어 육지를 잇는다. 또한 집을 짓는 데에 나무를 사용하고, 나무로 신상도 만든다.¹⁾

식물은 다양한 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끝이 없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재생하는 자연의 신비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천수를 누리는 나무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에서도 나무가 지닌 생명력이 확인된다. 인간이 지닌 유한성과 유약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무와 식물이 갖는 생명력과 영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자연은 신성한 대상으로 여겨져서 신성으로 숭배되었는데, 나무와 식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자연에 뿌리를 둔 풀과 나무는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일을 반복하는 생명력의 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그리스인들은 나무와 식물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신화로 전한다.²⁾

1) Plinius, *Naturalis Historia*, 12.1. 이와 유사한 생각은 21세기의 셸 실버스타인, 이재명 역 (2017)의 소설 『아깁없이 주는 나무』에서도 이어진다.

나무와 식물이 지닌 신성은 비단 신화 속에서 상징적으로만 남겨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것은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하거나 신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인정받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의 의지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신탁이 중요한 종교적 의례였는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신탁으로 알려진 도도나 Dodona에서는 참나무가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도도나의 성소는 제우스를 모신 곳으로, 이곳의 사제들은 참나무의 잎이 내는 소리를 듣고 해석함으로써 신의 뜻을 헤아렸다고 한다.³⁾

고대 그리스인들이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신상에 관한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석재로 신상을 만들어 모시기 이전부터 그리스인들은 목재로 신의 형상을 조각하여 투박한 형태의 신상xoanon을 모셨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각 신상을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나무로 제작하여 성물로 중요하게 다루었다.⁴⁾

문헌을 통해 드러나는 고대의 신화와 종교에서 나무에 관한 기록 못지않게, 고대 그리스의 건축과 조각, 도기 등 다양한 형식의 조형 예술에서도 식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르카익기와

2) 식물의 신화 연구서로 동서양의 방대한 신화와 종교 자료를 총망라하고 2007년에 재출간된 바 있는 Philpot, J. H. (1897)가 있다. 국내에서도 식물의 신화와 관련된 몇 권이 책이 발간된 가운데 차크 브로스, 양영란 역 (2005)와 홀거 룬트, 장혜경 역 (2007)가 있으나, 이 두 권의 단행본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부분적으로 다룬다.

3) Herodotos, *Histories*, 2.54-57; Strabon, *Geographika*, 7.7; Parke, Hervert W. (1967), p. 52. 아르고호의 모험에서는 아테나가 도도나의 참나무를 잘라 아르고호의 뱃머리를 만들었고 예언하는 능력을 지니게 했다고 한다(Apollonios Rhodios, *Argonautika*, 4.580-590). 도도나의 신탁은 서기 362년에 페르시아로 원정을 앞둔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Julian the Apostate(재위 355-363년)도 받았고, 테오도시우스 대제Theodosius the Great (재위 서기379-395년)의 이교 신전을 폐쇄하는 칙령이 시행되기 전인 서기 4세기 말까지도 지속되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4) 때로는 이러한 투박한 형태의 목각 신상은 인간의 숨췌가 아니라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Pausanias, *Periegesis Ellados*, 3.16.11; 4.23.2).

고전기의 그리스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나무와 식물에 관한 고대 그리스인들이 품었던 생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올리브나무와 석류, 포도나무, 아칸서스acanthus에 한정될 것인데, 이들 식물은 그리스의 문헌과 조형예술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것으로 필자의 그간의 연구에서 파편적으로 다루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⁵⁾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식물의 종류는 그 각각이 하나의 연구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자료가 방대하기에 본 연구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식물에 관한 예비적 성격의 연구로 한정하고 후속 연구를 이어가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고대 그리스에 관한 연구를 자연물에 대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그에 관한 고대인의 상념을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서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⁶⁾

II. 올리브나무

올리브는 고대부터 현재까지도 그리스인들에게는 중요한 식자재이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필수적 자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올리브와 관련하여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역사, 문화적으로 특별히 연관을

5)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식물의 종류가 고대 그리스에서의 식물 연구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6) 이 주제의 연구로는, 호메로스와 헤로도토스, 비극에서 나무와 식물을 고찰한 E.S.포스터(Forster)의 세편의 논문이 있다(Forster, Edward S. (1936), pp. 97-104; Forster, Edward S. (1942), pp.57-63; Forster, Edward S. (1952), pp. 57-63). '신성한 나무'를 그리스의 종교와 신화의 측면에서 다룬 석사학위 논문으로 Smardz, Karolyn E.(1979)가 있다. 비교적 최근 자료들은 고대의 식물을 농경의 역사나 의학사의 측면에서 다루는 것으로는 Hardy, Gavin et al. (2015)와 Che, Jayoung (2016)가 있고, 올리브나 석류와 같이 구체적 식물의 종류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그 일부를 고대 그리스에 할애한다. 대표적으로, Foxhall, Lin (2007); Stone, Damien (2017)이 있다.

지을 수 있는 도시를 꼽으라면 아테네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⁷⁾ 신화 상에서 아테나가 도시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기 위하여 포세이돈과 함께 겨룰 때에 아테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증정한 선물이 바로 올리브나무였기 때문이다. 아테네인들은 포세이돈이 선물한 바닷물을 대신하여 아테나의 선물인 올리브나무를 선택하였고, 그녀는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었다. 그래서 올리브와 그 나무는 아테네와 그 곳의 사람들을 상징하게 되었고, 고대 아테네에서 발행된 주화에도 아테나 여신의 얼굴과 그녀를 상징하는 부엉이와 함께 올리브 나뭇가지가 새겨지게 되었다.⁸⁾

현대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는 농지에서는 물론이고 도심에서도 가로수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수종이다. 본래 아티카 지역은 나무가 자라기 쉽지 않은 기후와 토양을 지니고 있어서 예부터 목재가 귀하였다. 특히 고대에는 고기와 젖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목축 활동으로 어린 나무들이 쉽게 훼손되었기에 성목으로 자라기 쉽지 않았다. 성목으로 자란 올리브나무는 여름에 에게 해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가을에 추후한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는 불을 밝히거나, 몸에 바르고 음식에 사용되었다.

신화 상에서 아테나는 아크로폴리스에 올리브나무를 심어 아테네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전한다. 아테네인들은 곧 이 나무에서 나온 새로운 12그루의 나무를 아카데모스Akademos의 성소인 아카데메이아Akademeia에 옮겨 심었고 이곳을 ‘신성한 숲’으로 여겼다.⁹⁾ 그리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린 신성한

7) Papazarkadas, Nikolaos (2011), pp.261-2; Tyrrell, William Blake (2004), pp. 160-161.

8) 아테네에서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발행된 테트라드라크마Tetradrachm의 이미지.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NGCop_039.jpg#/media/File:SNGCop_039.jpg.

9) 테세우스가 어린 헬렌을 납치하여 그녀의 오빠들인 디오스쿠로이Dioskouroi가 아테네를 공격하려 했으나, 영웅 아카데모스(또는 헤카데모스Hekademos)가 헬렌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준 덕분에 아테네인들이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Plutarchos,

올리브나무들을 ‘모리아이(moriai)’라는 이름으로 불렀다.¹⁰⁾ 아테네인에게 도시 외곽에 있는 이 숲은 도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다.

아크로폴리스에 에렉테이온(Erechtheion)의 근처에는 지금도 올리브나무가 있지만, 기원전 5세기에도 한 그루의 올리브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전한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인들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약탈하였을 때 방화로 그곳에 있던 올리브나무가 불에 탔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아테네인들이 성소에 제물을 바치러 갔을 때 불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이 올리브 가지가 자라났다고 전한다.¹¹⁾ 도시의 재난 직후에 아크로폴리스에 있던 올리브나무에서 목격된 이 신비한 현상은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의 존재함과 적들의 공격에도 아테네인들과 도시가 굴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대변한 것이었다.¹²⁾

비극작가 소포클레스도 자신이 사망한 후인 기원전 401년에 아테네의 대디오니시아 축제에서 초연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아테네인들과 올리브나무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한다. 그는 코로스의 입을 통하여 “정복되지 않고 저절로 자라났으며 적군의 창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그 나무”, “우리 자식들을 길러주는 회색 잎의 올리브나무”라고 노래하고 페르시아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인들의 기개와 올리브나무의 생명력을 동일시하며 칭송한다.¹³⁾

올리브나무는 아테네라는 도시와 그 시민들과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올리브 숲이 있는 아카데미아는 아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위한 제단이

Theseus, 32, 2-4).

10) Aristophanes, *Nephelai*, 1005. 고대 아테네의 지도와 아카데미의 위치.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theneOudheid.JPG#/media/File:AtheneOudheid.JPG>.

11) Herodotos, *Histories*, 8.51-55.

12) Mikalson, Jon D. (2003), p. 73,

13) Sophokles, *Oidipous epi Kolono*, 695-706.

있던 종교적인 공간이자,¹⁴⁾ 아테네의 젊은 남성들이 몸과 정신을 단련하여 도시를 이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공간인 김나시온gymnasion이 위치한 곳이었다.¹⁵⁾ 페르시아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아테네의 영웅으로 추앙받은 키몬Kimon은 그 승리를 기념하여 아카데메이아에 있던 김나시온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¹⁶⁾ 이 전쟁 영웅의 후원은 전후에 도시를 재건하는 여러 중대한 사안 가운데에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공간, 특히 아카데미아의 올리브 숲에 있는 김나지온을 정상화하는 사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던 소포클레스의 “우리 자식들을 길러주는 회색 잎의 올리브나무”라는 표현은 아카데메이아의 김나지온에서 미래의 시민들이 양성될 것이라는 아테네인들의 상념이 담긴 것이라 보여진다.

올리브나무는 아테네에서 벌어진 판아테나이아Panathenaia 축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축제는 아테네에서 열리는 축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 축제에는 각계각층의 아테네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주요 행사로 도심을 가로질러 아테네의 성소가 있는 아크로폴리스까지 이어지는 긴 행렬이 벌어졌다. 이 행렬에는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을 담은 항아리와 바구니를 들고 가는 여인들, 희생제에 사용할 황소를 이끄는 사람들, 말을 탄 사람들, 약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뭇가지를 든 신망이 있는 시민남성들thallophoroi이 행렬에 참여하였다. 이 행렬은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아테나 폴리아스Polias를 위한 제단에서 벌어진 희생제에서 끝이 났다. 이 행렬의 모습은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파르테논의 프리즈 조각에서 재현되어 있는데, 그 한 부분에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손에 든 남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¹⁷⁾

14) Athenaeus, *Deipnosophistae*, 13.561 d-e.

15) Aristophanes, *Nephelai*, 1005-7. 이후에 기원전 387년에 철학자 플라톤이 이곳에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현재까지 이곳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Ακαδημία Πλάτωνος’라고 불린다.

16) Plutarchos, *Kimon*, 13.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머리관은 올림피아Olympia에서 열린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수여된 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¹⁸⁾ 판아테나이아에서 열린 운동경기의 우승자도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머리관을 상으로 받았다. 판아테나이아 축제는 올림피아의 축제가 범그리스적인 축제로 성공한 후에 성립된 몇 개의 축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의미에서 올림피아의 경기 우승자들에게 수여한 올리브 머리관을 아테네의 축제에서도 수여하는 것은 판아테나이아의 우승자가 올림피아에서의 우승에 버금가는 영예를 갖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¹⁹⁾ 더욱이 아테네인들에게 올리브나무는 포세이돈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아테나를 상징하였기에 우승자를 위한 머리관의 재료로 적합하였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경기의 우승자에게 머리관을 제공하는 관례는 동시대 페르시아에서는 낯선 광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페르시아의 장수 티그라네스Tigranes는 그리스인들이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돈이 아니라 올리브 머리관을 받기 위해서라고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그리스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된 자신의 상황을 원망한다.²⁰⁾ 돈으로도 살 수

17) 파르테논 북쪽 프리즈 no.X. “Η Ζωφόρος του Παρθενώνα”, <http://www.parthenonfrieze.gr/#/view/northfrieze/block10>.

18) Aristophanes, *Plutus*, 583-587. 올리브나무로 만든 머리관의 기원에 관해서는 Pausanias, *Periegesis Ellados*, 5.7.7에서 다룬다. 파우사니아스는 그리스의 여러 축제에서 벌어진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각기 다른 나무로 만들어진 머리관이 사용되었다고 전한다(Pausanias, *Periegesis Ellados*, 8.48.2). 그에 따르면 올림피아에서는 야생 올리브, 델포이Delphoi에서는 월계수, 이스트미아Isthmia에서는 소나무, 네메아Nemea에서는 셀러리로 만든 머리관이 우승자에게 주어졌고, 특히 소나무와 셀러리 머리관은 팔라이몬Palaemon과 아르케모로스Archemoros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승자들에게 야자수로 만든 머리관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우승자는 오른손에 야자수 가지를 쥐었다. 한편, 핀다로스는 이스트미아에서 셀러리로 만든 머리관이 우승자에게 제공되었다고 전한다(Pindaros, *Isthmionikoï*, 2.16; 8.64).

19) 다른 점이 있다면 올림피아에서의 올리브나무관은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가져 온 것이지만, 아테네에서의 올리브나무관은 열매를 맺도록 개량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Valavanis, Panos (2004), p. 312).

20) Herodotos, *Histories*, 8.26.

없는 올리브 머리관은 단순히 승리의 상징을 넘어서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던 영웅시대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었다.²¹⁾

판아테나이아의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이들은 신성한 올리브 숲에서 채취한 기름을 부상으로 받았다.²²⁾ 이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의 총 책임은 연호집정관 *eponymous archon*이 맡았는데, 그는 각종 경연의 우승자를 위하여 60톤 내지 70톤에 이르는 양의 기름을 마련해야 했다.²³⁾ 부상으로 수여된 올리브기름은 판아테나이아 부상 암포라에 담겨서 우승자에게 증정되었다.²⁴⁾ 경기의 우승자를 위한 올리브기름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축제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다.²⁵⁾ 경기의 우승자에게 제공되는 이런 부상은 그리스 전역에서 역량이 뛰어난 선수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1) 한편, 헤로도토스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머리관이 페르시아에서도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일화도 전한다.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에게 다시 그리스로 원정을 나서도록 만든 신기한 꿈과 그 해석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크세르크세스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머리관을 쓰고, 온 대지가 올리브 가지로 뒤덮였다가 그의 머리관이 곧 사라지는 꿈을 꾸었고, 왕의 신관들은 이 꿈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크세르크세스의 노예가 되는 전조로 해석하였다 (Herodotos, *Histories*, 7,19; Mikalson, Jon D. (2003), p. 43).

22) 일레로, London, British Museum, inv.1852.0707.1. “Beazley Archive no. 8786”,
<https://www.beazley.ox.ac.uk/XDB/ASP/recordDetails.asp?recordCount=2&start=0>.

23) 판아테나이아에서 운동 경기의 종목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뉘었는데, 각각은 통상 육상 경기 종목으로 이해되는 나체 경기 *gymnikos agon*와 마상 경기 *hippikos agon*, 해상 경기였다. 소년들의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한 자는 50개의 암포라에 담긴 올리브기름, 시민들이 참여하던 군장 경기 가운데 마상 경주의 우승자는 16개의 암포라에 담긴 올리브기름을, 쌍두마차 경주의 우승자는 30개의 암포라에 담긴 올리브기름을 부상으로 받았다(*Inscription Graecae* II2 2311(이하 *IG* II2로 표기)) “*IG* II2 2311”,
<https://inscriptions.packhum.org/text/4550?&bookid=5&location=7>; Miller, Stephen G. (2012), pp. 81-85, no.120).

24) Valavanis, Panos (2004), pp.306-307; Kyle (1987), pp.178-194.

25) Aristotles, *Athenaion Politeia*, 60.1.

III. 석류

예나 지금이나 석류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품은 수많은 씨앗과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과즙은 생식력과 연관되어 왔다.²⁶⁾ 고대 그리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과 가정의 수호신인 헤라의 성소가 발달하였던 사모스Samos와 아르고스Argos에는 여신에게 가정의 풍요를 기원하여 바친 봉헌물 가운데 유독 석류의 형상을 흙으로 빚은 조형물이 자주 발견된다.²⁷⁾ 또한 서기 2세기에 그리스를 여행한 파우사니아스는 파에스툼Paestum과 아르고스에 위치한 헤라의 성소에서 아르카의 시기에 제작된 여신의 신상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 신상이 손에 석류를 든 모습이었다고 기록한다.²⁸⁾ 역시 같은 시대의 또 다른 문헌에서는 석류나무를 ‘헤라의 나무’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석류나무가 헤라와 연관된다는 관념이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보편적이었음을 드러낸다.²⁹⁾

그리스의 조형물에서 석류가 재현된 것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케르노스kernos라고 불리는 원형의 관 형태의 도기를 꼽을 수 있다. 기원전 600년경에 사모스에 있는 헤라의 성소에 봉헌된 이 케르노스에는 여신에게 바치는 여러 종류의 봉헌물이 흙으로 빚어져 있다.³⁰⁾ 이 케르노스에 형상화된

26) 헤로도토스는 석류가 지닌 많은 씨앗의 개수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Herodotos, *Histories*, 4,143).

27) 사모스, 델로스(Delos), 아르고스 등에 있는 헤라의 성소에서 발견되었다. O'Brien, Joan V. (1993), pp.63-66.

28) 아르고스에 헤라의 성소에 위치한 여신의 신상은 폴리클레이토스Polykleitos의 작품으로 전한다(Pausanias, *Periegesis Ellados*, 2,17,4).

29) Philostratus, *Vita Apollonii*, 4,28.

30) 바티Vathy, 사모스 고고학박물관 소장. Immerwahr (1989), pl.72d; “iDAI Objects Arachne no.217784”, [https://arachne.uni-koeln.de/arachne/index.php?view\[layout\]=objekt_item&search\[constraints\]\[objekt\]\[searchSeriennummer\]=217784](https://arachne.uni-koeln.de/arachne/index.php?view[layout]=objekt_item&search[constraints][objekt][searchSeriennummer]=217784).

이미지에는 석류 외에도 바다를 상징하는 조개, 야생의 동물과 가축을 상징하는 두꺼비와 원숭이, 사자, 산양, 황소의 머리, 인간을 대표하는 남성전사와 여성의 두상이 포함된다. 여기서 석류는 땅에서 나는 풍요로운 결실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³¹⁾ J. 오브리언 O'Brien은 이 도기를 튜브 형태의 원에 여럿의 봉헌물을 한데 묶음으로써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열매'를 여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³²⁾ 이 케르노스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점들이 남아 있지만, 이것이 풍요의 신성으로서 헤라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봉헌물이었다는 점과 석류가 총체적 풍요를 상징하였다는 점에서 오브리언의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석류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와 연관된 열매이기도 하였다.³³⁾ 농경과 경작의 신성인 데메테르에게 씨앗이 많은 석류는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적합한 식물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석류는 죽음과도 연관되었다.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끌려가 지하세계에 갇혀 지내는 동안 몇 알의 석류를 먹음으로써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석류 몇 알로 결국 그녀는 지상과 지하세계를 오가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³⁴⁾ 이로써 붉은 석류의 과즙은 피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죽음'의 상징성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³⁵⁾

봉헌물이나 장례조형물로 사용된 여성상인 코레Kore는 석류가 지닌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아르카익기에 제작된 석재 여성

31) 사모스, 델로스, 아르고스 등에 있는 헤라의 성소에서 발견됨.

O'Brien, Joan V. (1993), p. 64

32) O'Brien, Joan V. (1993), p. 65.

33) 조안 오브리언은 기원전 600년 이후에는 석류는 헤라와 관련해서는 신부와 관련된 상징으로 한정되고, 풍요와 관련된 상징성은 데메테르로 옮겨간다고 지적한다. O'Brien, Joan V. (1993), p. 66.

34) Apollodoros, *Bibliothēke*, 1.5.3.

35) 붉은 피는 죽음과 생명의 양가적 상징성을 지닌다. Immerwahr, Sara A. (1989), p. 408; Burkert, Walter (1985), pp. 160-161.

입상을 가리키는 ‘코레’는 그리스어로 ‘처녀’, ‘딸’이라는 의미로, 페르세포네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명 ‘베를린 코레Berlin Kore’ 불리는 한 여성상은 대표적인 초기 코레상으로, 한 손에 석류를 쥐는 모습을 하고 있다.³⁶⁾ 이 여성상은 머리에 원통형의 폴로스polos를 썼는데, 그리스 조형예술에서 주로 여신이나 여사제들이 이 폴로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른 손에 석류를 쥐는 모습에서 이 여성이 헤라나 데메테르와 같은 풍요의 신성을 재현한 것이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³⁷⁾ 다른 한편으로, 이 여성은 출산과 풍요를 신에게 기원하는 인간 봉헌자일 수 있다. ‘프라시클레이아Phrasikleia 코레’처럼 장례 조형물로 코레상이 사용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³⁸⁾, ‘베를린 코레’는 신화 속에서 페르세포네와 같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여성을 조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IV. 포도나무

고대부터 포도는 향과 맛이 좋고 과즙이 풍부하여 생과로 섭취하거나 포도주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땅에 포도를 소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었다고 전한다.³⁹⁾ 포도주는

36) Berlin, Staatliche Museen, Antikensammlung Berlin inv.1924/25. “iDAI Objects Arachne no.2204”, [https://arachne.uni-koeln.de/arachne/index.php?view\[section\]=uebersicht&view\[layout\]=objekt_item&view\[caller\]\[project\]=objekt&view\[page\]=0&view\[category\]=overview&search\[data\]=ALL&search\[mode\]=detail&search\[match\]=word-boundary&view\[active_tab\]=overview&search\[constraints\]\[objekt\]\[BerlinObjekt\]=2204](https://arachne.uni-koeln.de/arachne/index.php?view[section]=uebersicht&view[layout]=objekt_item&view[caller][project]=objekt&view[page]=0&view[category]=overview&search[data]=ALL&search[mode]=detail&search[match]=word-boundary&view[active_tab]=overview&search[constraints][objekt][BerlinObjekt]=2204).

37) Pausanias, *Periegesis Ellados*, 2,17,4.

38) 장례조형물로 알려진 ‘프라시클레이아 코레’에 관해서는 김혜진(2015), pp. 21-23, 도판11 참고.

39) 그는 제우스와 세멜레Semele의 사이에서 난 아들로, 태중에서부터 여러 고초와

그리스의 식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향연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⁴⁰⁾ 향연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은 다른 생각들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열어주는 포도주를 곁들일 때에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적절히 활용하여 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일은 포도주에 관한 그리스인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헤라는 자신이 낳은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절름발이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올림포스 산에서 그를 내쫓는 일이 있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에게 복수하고자 특수한 장치가 된 의자를 만들어 보냈고, 이를 모르고 그 의자에 앉은 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이게 되었다. 여러 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헤파이스토스를 설득하지 못하였지만, 디오니소스가 그를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 데려옴으로써 헤라가 풀어날 수 있었다.⁴¹⁾

포도주는 계획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예측불가능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기도 하였다. 디오니소스에게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처음으로 배운 이카리오스Ikarios가 아테네인들에게 포도주를 소개하였다가 죽음을 당한 일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이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이카리오스가 독약을 먹었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인데, 다음 날 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다. 임신한 세멜레는 제우스의 모습을 보길 애원하다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제우스의 섬광에 타죽게 되고, 이에 제우스는 태중에 있던 디오니소스를 꺼내 자신의 허벅다리에 넣어 키워 무사히 태어나게 하였다. 하지만 헤라의 눈의 피해야 했기 때문에 제우스는 그를 님페들Nymphes에게 맡겨 양육하였다. 성인이 된 후에 디오니소스는 포도 재배와 포도주 제작법을 익히고 여러 지역을 떠돌며 모험을 이어갔다. 디오니소스가 그리스에 심은 첫 포도나무를 선물로 받은 자는 칼키돈Calydon의 왕 오이네우스Oineus였다. 그의 목동이었던 스타필로스Staphylos는 나무에서 난 열매의 즙으로 만든 음료를 만들게 되고, 오이네우스가 이 맛있는 음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오이노스oinos’, 즉 ‘포도주’, ‘술’이라 부르게 되었다.

40) 향연을 일컫는 ‘심포지움symposium’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심포지온symposion’에서 온 것으로, ‘(포도주를) 함께sym- 마시는posis’ 자리를 의미하였다.

41) 이상덕, 「대대디오니시아 제전祭典과 아테네 제국주의 ‘분리를 통한 통합’의 장」, 『歷史學研究』 72집 (2018), p. 293.

그를 묻어 주었다고 한다.⁴²⁾ 포도주가 지닌 위험성은 디오니소스 숭배에서 드러나는 광기에 대한 위험성과도 관련되었다. 에우리피데스의 『박코스 여신도들』에서는 디오니소스를 평화와 풍족함을 가져다주는 신이자 포도주로 슬픔을 멈추게 하고 성적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신으로 소개한다.⁴³⁾ 하지만 그의 숭배는 광기로 이어져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⁴⁴⁾

신화 상에서 디오니소스와 포도나무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티레니아 해Tyrrhenian Sea의 해적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젊은 디오니소스를 배에 태웠다가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바다 한 가운데에서 해적들이 디오니소스를 포박하려하자, 화가 난 디오니소스가 신성을 드러냈고 이에 놀란 해적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곧 이어서 돌고래로 변하였다.⁴⁵⁾ 이 신화적 사건은 아티카의 도기화가 엑세키아스Exekias가 기원전 530년경에 만든 흑화식 포도주잔kylix의 안쪽에 묘사되어 있다.⁴⁶⁾ 여기에는 해적선에 탄 디오니소스가 히마티온himation을 두르고 수염을 기른 장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는 배에 몸을 반쯤 기대어 누워 있고, 손에는 뿔 모양의 잔rhyton을 든 모습이다. 배의 주변으로는 일곱 마리의 돌고래가 헤엄을 치고, 배의 한가운데에 있는 돛대를 감싼 포도덩굴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아르카의 시대에 제작된 디오니소스의 도상을 연구한 C. 이슬러-케레니이는 이 도기화가 신화의 전승을 따르지 않고 디오니소스를 수염이 있는 장년의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신화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2) Apollodoros, *Bibliothēke*, 3.14.7.

43) Euripides, *Bakkai*, 420; 772.

44) Euripides, *Bakkai*, 1140-2.

45) *Homerikos Hymnos* 7.

46) München, Staatliche Antikensammlungen inv. 2044. "Beazley Archive no. 310403", <https://www.beazley.ox.ac.uk/XDB/ASP/recordDetails.asp?recordCount=1&start=0>.

그에 따르면, 해적선에 반쯤 기대어 누운 신의 모습은 향연에 참석하여 침상 kline에 기댄 남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에, 이 도기화에서 향해는 향연을 은유하는 것이고 해적선을 뒤덮은 포도나무는 향연의 참석자가 디오니소스적인 행복감에 취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보았다.⁴⁷⁾ 비슷한 의미에서, 디오니소스가 포도 잎과 덩굴로 만들어진 관을 머리에 쓰고,⁴⁸⁾ 포도주잔을 든 모습으로 그리스 미술에서 그려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디오니소스의 주변에 포도 덩굴과 잎, 열매가 무성하게 그림으로써 그의 신성한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포도나무와 디오니소스는 축제와도 관련이 있다. 고대 아테네의 공식적인 축제 가운데 디오니소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小 디오니시아 Mikra Dionysia, 레나이아 Lenaia, 안테스테리아 Anthesteria, 大 디오니시아 Megala Dionisia, 오스코포리아 Oschophoria였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축제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해당하는 안테스테리온 Anthesterion 달에 열리는 안테스테리아로, 여기서는 지난해에 담근 포도주를 개봉하고, 사티로스 분한 사람들의 행렬과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열렸다. 가멜리온 Gamelion(1월말-2월초) 달에 열리는 레나이아 축제에서는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사를 치르고 후에는 大 디오니시아 축제를 모방하여 작은 규모의 비극 경연도 열었다. 포세이온(12월말-1월) 달에 열리는 小 디오니시아와 가멜리온 달에 열리는 레나이아에서도 비극과

47) Isler-Kerényi, Cornelia (2007), pp.182-187.

48)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inv. 06.1021.101. "Beazley Archive no. 9587,"
<http://www.beazley.ox.ac.uk/record/1F1DCB69-C2D9-44C5-94CF-EEE255148E7F>.

49) 디오니소스는 때로는 포도덩굴이나 담쟁이덩굴로 감긴 지팡이인 티르소스 thyrsos를 든 모습으로 그려진다. Berlin, Antikensammlung, Rome, Mus. Naz. Etrusco di Villa Giulia, Berlin, Schloss Charlottenburg, inv. F2290. "Beazley Archive no. 204730",
<http://www.beazley.ox.ac.uk/record/F2E549B7-AEFB-4251-8EAB-DD1FAB12ABEB>.

희극 경연이 열렸다. 피아넵시온(10월-11월) 달에 열리는 오스코포리아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 감사절과 흡사한 행사가 벌어졌다.⁵⁰⁾ 이 가운데 가장 큰 축제는 3월말에서 4월초에 해당하는 엘라페볼리온 Elaphebolion 달에 열리는 大 디오니시아였다.⁵¹⁾

이러한 축제에서는 사람들은 디오니소스의 상징인 포도 잎과 꽃을 원형으로 엮은 화관이나 포도덩굴과 잎으로 만든 관을 신전과 집, 사당의 입구에 걸었다. 포도 덩굴과 잎으로 만든 관은 도시 곳곳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였다.⁵²⁾ 이는 그 축제의 주인이 되는 신성과 관련이 있는 나무로 만든 머리관을 운동경기의 우승자에게 수여하고 그 성과를 명예롭게 하는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V. 아칸서스

아칸서스(또는 아칸투스, 아칸터스, 아칸토스)로 불리는 이 식물은 지중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러해살이 관목이다. 아칸서스는 그리스의 신전 기둥의 양식 가운데 하나인 코린토스 양식Corinthian Style의 모티프로 잘 알려진 식물이기도 하다. 이 코린토스 양식의 탄생에 관하여 로마시대의 저술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에 이야기가 전한다. 코린토스에서 한 보모가 자신이 돌보던 소녀의 무덤을 찾아 바구니에 그녀가 좋아하던 것들을 담아 무덤 위에 놓아두었다. 이듬 해 무덤에 봉헌한 바구니 아래에 있던 아칸서스의 뿌리에서 난 잎과 줄기가 바구니를 비집고 자라난 형상을 본 조각가 칼리마코

50) 아테네의 디오니시아 축제에 관해서는 최혜영 (2010), pp. 9-15 참고.

51) 디오니시아는 본래 엘레우테라이에서 열리던 축제였다. 아테네인들이 이 축제를 도입하여 옛 디오니시아를 小 디오니시아(또는 시골 디오니시아Rural Dionysia와 大 디오니시아(또는 도시 디오니시아City Dionysia)로 구분하여 불렀다.

52) American School of Classical Studies at Athens (1963), pp. 33-34.

스Kallimachos가 코린토스 양식을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⁵³⁾

서양건축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코린토스 양식의 주두는 바사이Bassai에 있는 아폴론의 신전Temple of Epikourios Apollo에서 나타났다.⁵⁴⁾ 기원전 5세기 말에 건축된 이 신전은 외부에 도리스 양식의 원주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이오니아 양식의 부착 기둥 사이로 셸라cella를 구분하는 공간에 코린토스 양식의 원주 하나가 위치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코린토스 양식은 에피다우로스Epidaurus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Asklepieion에 위치한 원형의 구조물인 톨로스tholos의 내부에 위치한 원주에서도 나타났다.⁵⁵⁾ 이오니아 양식의 주두가 평면적 조형미를 지닌 것과 비교하여, 이 톨로스의 코린토스식 기둥은 소용돌이 형태의 식물 줄기가 보다 작게 조각되어 하나의 주두에 여럿의 줄기를 조각함으로써 정면성과 평면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테네에서 코린토스 양식이 처음 도입된 사례는 기원전 335/4년에 타디오니시아 축제에서 벌어진 디티람보스 경연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여 후원자 리시크라테스Lysikrates가 세운 후원 기념물이었다.⁵⁶⁾ 리시크라테스의 후원

53) Vitruvius, *Architectura*, 4,1,9-10.

54) 바사이의 아폴론 신전의 내부를 재구성한 이미지.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ssae.jpg#/media/File:Bassae.jpg>

55) 에피다우로스의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에 위치한 톨로스의 주두capital부 이미지.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rinthian_capital_-_Archaeological_Museum_of_Epidaurus.jpg#/media/File:Corinthian_capital_-_Archaeological_Museum_of_Epidaurus.jpg

56) 아테네에 소재한 리시크라테스 후원 기념물의 이미지.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E%9C%CE%BD%CE%B7%CE%BC%CE%B5%CE%AF%CE%BF_%CF%84%CE%BF%CF%85_%CE%9B%CF%85%CF%83%CE%B9%CE%BA%CF%81%CE%AC%CF%84%CE%B7_6122.jpg#/media/File:Mνημείο_του_Λυσικράτη_6122.jpg. 후원에 관한 내용이 지붕 아래 처마에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키키나Kikynna 출신의 리시테이데스Lysitheides의 아들, 리시크라테스가 후원자였다. 아카만티스Akamantis(부족)의 소년들(합창대)이 승리하였고, 연주자는 테온Theon이었다. 아테네 출신의 리시아데스가 (합창대를)

기념물은 3미터 높이의 기단석podium에 세워진 원통형의 구조물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12미터 정도이다. 원통형의 기념물 외벽에는 여섯 개의 코린토스 양식의 원주가 부착 기둥의 형태로 조각되어 있고, 주두 위에는 위치한 긴 프리즈에는 디오니소스와 사티로스들이 티레니아의 해적들을 벌주고 그들을 돌고래로 변하게 한 신화가 조각되어 있다. 이 기념물의 원형 지붕은 깃털로 뒤덮인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그 지붕의 중앙에는 아칸서스 형상으로 조각된 아크로테리온akroterion이 솟아있다. 사라진 청동 세발술 tripod을 포함하였다면 이 기념물의 전체 높이는 15미터에 달했을 것이다.⁵⁷⁾

고전 건축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다룬 연구서에서 M. W. 존스Jones는 리시크라테스의 후원 기념물에서 코린토스 양식이 외관에 적용되고 우승의 표식인 청동 세발술을 받치는 아래에 아칸서스 앞으로 장식된 받침대가 놓인 것을 아칸서스 앞이 지닌 승리와 부흥의 의미와 관련하여 설명한다.⁵⁸⁾ 아칸서스 앞은 주두에 사용되기 이전부터 청동 장식품이나 장례용 비석의 상단을 장식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칸서스 앞이 지닌 죽음을 극복하는 승리, 즉 부활과 화려한 부흥이라는 함의가 통용되었음을 보인다.⁵⁹⁾ 같은 맥락에서, 리시크라테스의 후원 기념물의 주두 장식과 지붕 중앙부에 조각된 아칸서스 앞의 모티프 역시도 후원자의 우승에 강인한 생명력과 힘이라는 상징성이 조합되는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훈련시켰다. 에우아이네토스Euainetos가 집정관이었다”. “IG II2 3042”,
<https://www.atticinscriptions.com/inscription/IGII34/460>.

57) 김혜진 (2018), pp. 7-31.

58) Jones, Mark Wilson (2014), pp.150-156.

59) 애초에 원주의 주두에 식물의 모티프가 사용되는 것은 예부터 신성한 나무를 잘라 신전의 기둥을 세우던 관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재로 신전을 만든 후에도 신성한 나무에 대한 시각적 상징이 주두에 조각된 식물 모티프의 기원으로 여겨진다(Jones, Mark Wilson (2014), p. 142, note. 26-7).

VI. 나가는 글

동물이나 식물은 자연을 대변하는 존재이지만, 이들에 관한 상념은 문화적인 산물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특정의 나무와 식물에 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였다. 올리브나무는 아테나의 신성, 운동경기에서의 명예로운 승리의 표식으로 인식되었고, 석류는 헤라, 데메테르와 같이 출산과 생식력, 생명력을 관장하는 신성과 연관되거나 지하세계와 죽음을 의미하였다. 포도나무는 포도주의 영향력과 디오니소스의 신성과 그 힘을 대변하였고, 아칸서스는 강인한 생명력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즉, 그리스인들의 관점에서 나무와 식물은 대자연의 법칙(또는 특정한 신의 능력)을 대변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영웅적/초인간적 능력(경기나 경연에서의 우승)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올리브나무, 석류, 포도나무, 아칸서스가 의미하였던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이나 신의 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성함’이 될 것이다. 이 신성함은 정령이나 신성이 깃든 구체적인 나무를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뜻하지 않는다.⁶⁰⁾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힘이나 존재에 대해 선협적으로 인간이 갖는 태도로서의 신성함을 의미한다.⁶¹⁾ 같은 맥락에서, 『길고 긴 나무의 삶. 문학, 신화, 예술로 읽는 나무 이야기』의 저자 피로나 스타퍼드는 서설에서 나무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식품과 자재의 공급처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산소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 호흡작용만으로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나무는 사실상

60) 다양한 문화권에서 목도되는 나무숭배를 나무 정령에 대한 믿음과 연관하여 설명한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역 (1994), pp.147-151 참고.

61) 고전기 아테네에서 동물에 관한 상념이 인간의 소유물로서나 인간중심적 human-centered 입장에서 해석되는 것에 비하여(김혜진 (2017), pp. 7-30), 나무와 식물에 관한 상념은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영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나무다”라고 적는다.⁶²⁾ 모든 나무와 식물은 그것의 실용적인 쓰임새를 고려하기 이전에, 그들의 존재만으로도(또는 호흡만으로도) 모든 생물체의 생존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신성한 힘을 지닌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식물과 나무에 관해 지녔던 신성함이라는 상념은 나무가 숲이 될 때에 더 강력하게 인식되었다. 신들의 성소나 신전이 신성한 숲이 있는 곳에 모셔진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잘 알려진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의 성소는 울창한 올리브나무와 각종 수목이 자라는 숲에 위치해 있다. 아폴론의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는 파르나소스Parnassus 산의 가파른 남서쪽 중턱에 위치한 곳으로, 큰 사이프러스Cypress 나무들이 성소에 눈에 띄게 자리하고 있다. 아테나가 아테네인들에게 선물한 올리브나무가 옮겨 심어진 아카데메이아도 숲이 우거져 있다. 고대에도 그랬듯이 모든 숲과 나무는 성소와 성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나무와 식물의 존재만으로도 그 공간은 신성한 세계로 여길 만하였다.⁶³⁾

62) 피오나 스태퍼드, 강경이 역 (2019), pp. 29-30.

63) 숲과 나무의 훼손은 신성한 세계의 파괴일 수 있다.

이재환 (2019), “[특과원리포트] 죽어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 누가 불지르나 봤더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4750&ref=A>.

참고문헌

- 김혜진 (2015), 『아르카익기 대형 독립상의 성립과 명문』, 『미술이론과 현장』, 20호: 7-30.
- _____ (2017), 『동물과 폴리스.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소장된 고전기 아티카 봉헌 부조와 비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양미술사논문집』 48: 7-30.
- _____ (2018), 『고대 아테네에서 축제 기억하기. 리시크라테스의 후원 기념물 사례 연구』, 『美術史學』 第36號: 7-31.
- 이상덕 (2018), 『대대디오니아 제전祭典과 아테네 제국주의 ‘분리를 통한 통합’의 장』, 『歷史學研究』 72집: 287-309.
- 최혜영 (2010), 『대 디오니시아에서 비극이 상연된 배경과 의미. 새로운 접근』, 『서양고전학연구』 39권: 5-33.

룬트, 홀거 (2006), 장혜경 역 (2007), 『식물탄생신화』, 서울:예담.

브로스, 자크 (1979), 양영란 역 (2005), 『식물의 역사와 신화』, 서울: 갈라파고스.

스테퍼드, 피오나 (2016), 강경이 역 (2019), 『길고 긴 나무의 삶. 문학, 신화, 예술로 읽는 나무 이야기』, 서울: 클

실버스타인, 셸 (1964), 이재명 역 (2017),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서울: 시공주니어.

프레이저, 제임스 조지 (1890), 이용대 역 (1994), 『황금가지』, 서울: 한겨레.

Amandry, Pierre (1976), “Trépieds d'Athènes : I. Dionysies,” *Bulletin de Correspondance Hellénique* 100: 15-93.

American School of Classical Studies at Athens (1963), *Garden Lore of Ancient Athens*. Princeton, NJ : American School of Classical Studies at Athens.

[Anonymous], *Homerikos Hymnos*.

[Apollodoros], *Bibliothèque*.

Apollonios Rhodios, *Argonautika*.

Aristophanes, *Nephelai*.

_____, *Plutus*.

Aristotles, *Athenaion Politeia*.

Athenaeus, *Deiphosophistae*.

- Burkert, Walter (1985), *Greek Religion: Archaic and Classical*, Oxford : Blackwell.
- Che, Jayoung (2016), *Comparison of Traditional Botano-Therapeutics between Far - Eastern Countries and Greece*, *Ιωάννινα: Πανεπιστήμιο Ιωαννίνων*.
- Forster, Edward S. (1936), "Trees and Plants in Homer," *Classical Review* 50: 97-104.
- _____ (1942), "Trees and Plants in Herodotus," *Classical Review* 56: 57-63.
- _____ (1952), "Trees and Plants in the Greek Tragic Writers," *Greece & Rome* 21: 57-63.
- Foxhall, Lin (2007), *Olive Cultivation in Ancient Greece. Seeking the Ancient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dy, Gavin et al. (2015), *Ancient Botany*. Abingdon, Oxon: Routledge.
- Herodotos, *Histories*.
- Homer, *Odysseia*.
- Immerwahr, Sara A. (1989), "The Pomegranate Vase: Its Origins and Continuity", *Hesperia*, 58: 397-410.
- Isler-Kerényi, Cornelia (2007), *Dionysos in Archaic Greece: An Understanding through Images*, Leiden: Brill.
- Jones, Mark Wilson (2014), *Origins of Classical Architecture*, New Haven, Connecticut : Yale University Press.
- Kyle, Donald G. (1987), *Athletics in Ancient Athens*, Leiden: E.J. Brill.
- Mikalson, Jon D. (2003), *Herodotus and Religion in the Persian Wars*, Chapel Hill, London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Miller, Stephen G. (2012), *Arete. Greek Sports From Ancient Sourc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Brien, Joan V. (1993), *The Transformation of Hera: A Study of Ritual, Hero and the Goddess in the "Iliad"*,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Papazarkadas, Nikolaos (2011), *Sacred and Public Land in Ancient Athe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e, Hervert W. (1967), *The Oracles of Zeus: Dodona, Olympia, Amm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Pausanias, *Periegesis Ellados*.
- Philostratus, *Vita Apollonii*.
- Philpot, J. H. (1897), *The Sacred Tree: the Tree in Religion and Myth*, London: Macmillan.

Pindaros, *Isthmionikoi*.

Plinius, *Naturalis Historia*.

Plutarchos, *Kimón*.

_____, *Theseus*.

Smardz, Karolyn E. (1979), *The Sacred Tree in Ancient Greek Religion*, Master's Thesis. Hamilton: McMaster University.

Sophokles, *Oidipous epi Kolono*.

Stone, Damien (2017), *Pomegranate. A Global History*, London: Reaktion Books.

Strabon, *Geographika*.

Tyrrell, William Blake (2004), *The Smell of Sweat: Greek Athletics, Olympics, and Culture*, Wauconda, Ill.: Bolchazy-Carducci.

Valavanis, Panos (2004), *Games and Sanctuaries in Ancient Greece. Olympia, Delphoi, Isthmia, Nemea, Athens*, Athens: Kapon Edition.

Vitruvius, *Architectura*.

이재환 (2019), “[특파원리포트] 죽어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 누가 불지르나 봤더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4750&ref=A>. (검색일: 2019.10.01.)

“Beazley Archive no. 8786”, <https://www.beazley.ox.ac.uk/XDB/ASP/recordDetails.asp?recordCount=2&start=0>. (검색일: 2019.10.01.)

“Beazley Archive no. 310403”, <https://www.beazley.ox.ac.uk/XDB/ASP/recordDetails.asp?recordCount=1&start=0>. (검색일: 2019.10.01.)

“Beazley Archive no. 9587,” <http://www.beazley.ox.ac.uk/record/1F1DCB69-C2D9-44C5-94CF-EEE255148E7F>. (검색일: 2019.10.01.)

“Beazley Archive no. 204730”, <http://www.beazley.ox.ac.uk/record/F2E549B7-AEFB-4251-8EAB-DD1FAB12ABEB>. (검색일: 2019.10.01.)

“Η Ζωφόρος του Παρθενώνα”, <http://www.parthenonfrieze.gr/#/view/northfrieze/block10>. (검색일: 2019.10.01.)

“iDAI Objects Arachne no.217784”,

[https://arachne.uni-koeln.de/arachne/index.php?view\[layout\]=objekt_item&search\[constraints\]\[objekt\]\[searchSeriennummer\]=217784](https://arachne.uni-koeln.de/arachne/index.php?view[layout]=objekt_item&search[constraints][objekt][searchSeriennummer]=217784). (검색일: 2019.10.01.)

“iDAI Objects Arachne no.2204”,

[https://arachne.uni-koeln.de/arachne/index.php?view\[section\]=uebersicht&view\[layout\]=objekt_item&view\[caller\]\[project\]=objekt&view\[page\]=0&view\[category\]=overview&search\[data\]=ALL&search\[mode\]=detail&search\[match\]=word-boundary&view\[active_tab\]=overview&search\[constraints\]\[objekt\]\[BerlinObjekt\]=2204](https://arachne.uni-koeln.de/arachne/index.php?view[section]=uebersicht&view[layout]=objekt_item&view[caller][project]=objekt&view[page]=0&view[category]=overview&search[data]=ALL&search[mode]=detail&search[match]=word-boundary&view[active_tab]=overview&search[constraints][objekt][BerlinObjekt]=2204). (검색일: 2019.10.01.)

“IG II2 2311”,

<https://inscriptions.packhum.org/text/4550?&bookid=5&location=7>. (검색일: 2019.10.01.)

“IG II2 3042”, <https://www.atticinscriptions.com/inscription/IGII34/460>. (검색일: 2019.10.01.)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NGCOp_039.jpg#/media/File:SNGCOp_039.jpg. (검색일: 2019.10.01.)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theneOudheid.JPG#/media/File:AtheneOudheid.JPG>. (검색일: 2019.10.01.)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ssae.jpg#/media/File:Bassae.jpg>. (검색일: 2019.10.01.)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E%9C%CE%BD%CE%B7%CE%BC%CE%B5%CE%AF%CE%BF_%CF%84%CE%BF%CF%85_%CE%9B%CF%85%CF%83%CE%B9%CE%BA%CF%81%CE%AC%CF%84%CE%B7_6122.jpg#/media/File:Mνημείο_του_Λουσικράτη_6122.jpg. (검색일: 2019.10.01.)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Some Plants in Ancient Greek Culture:

Focusing on Olive Tree, Pomegranate, Vine Tree, and Acanthus

Kim, Hye-Jin

This study examines the perspectives of ancient Greeks on plants and attempts to reconstruct their meanings based on the literature and archaeological material on olives trees, pomegranates, vine trees, and acanthus. Plants and trees were not only used in various ways by Greeks but also represented the cycle of nature and life, symbolizing strong fertility and abundance. Wreaths made of olive branches - a symbol of Athens and its guardian Athena - crowned the heads of victors of festivals and contests throughout Greece to commemorate their heroic triumph. Pomegranates, as a symbol of Hera and Demeter, represented fertility, abundance, and productivity, and also denoted the underworld of Hades in connection with Persephone. The vine tree was a feature of Dionysus and a symbol of the influence of Dionysus and wine. Acanthus was a popular motif used in the columns of temples and various buildings as well as funeral monument in tombs due to its symbolic association with Acanthus' strong vitality and resurrection. The four plants examined through ancient Greek literary and archaeological sources were closely related to a specific god and was used as a symbol of the god's divinity or embodied sacred meaning themselves due to their fertility and vitality or heroic victories in contests.

【Keywords】 Ancient Greece, Plants, Olive Tree, Pomegranate, Vine Tree, Acanthus

논문 투고일: 2019. 10. 12

심사 완료일: 2019. 10. 30

게재 확정일: 2019. 10. 30

